東友會報

發行人 崔載九
編輯人 尹天泳
印刷人 金東立

發行所
서울特別市 中區 筆洞3街26 東國大學校內
東國大學校
同窓會
直通 ㉗8568
交換 ㉗8131~9
非賣品

우편대체구좌번호
525669번

本會는 同門相互間의 友誼增進과 母校發展에 기여키 위한 事業을 전개한다

講演場마다 청중滿員

民族的긍지 크게振作

全國巡廻學術강연 「韓國의 傳統」主題로

各地域東友會서 주관

모교主催 全國 17個都市에서 盛了

「韓國의 傳統」을 주제로한 개교71주년기념 제2회 全國巡廻大學術講演會가 지난 10月18日 春川을 필두로 熱氣를 뿜기 시작하여 釜山·光州등 全國17個都市에서 各地域東友會가 주관한가운데 講演場마다 청중으로 大盛況을 이루었다.

이번강연회는 지난1일水原을 마지막으로 終了되었는데 동원된 청중은 延2만여명이었으며 演士들의열띤 강연으로 民族의 傳統思想과 文化창달에 크게기여하는한편, 東國의 명성을 坊坊曲曲에 드날렸다.

모교 企劃室(실장=閔丙天박사)에서 관장, 現地東友會가 주관하여 열린 이번강연회는徐廷柱(文理大·詩人)박사등 모교교수들로 구성된 연사들에의해 진행되었는데 주로 民族的긍지와 文化創造기풍을 진작하는 내용의 강연에이어 모교의 어제와 오늘을 소개하는 小型영화「오늘의 東國大學校」가 상영되었다.

이번 강연회에 참석한청중가운데 男女高校生들은演士들에게 싸인공세를 벌여 일부지방에서는 강연회가끝난뒤에도 혼잡을 빚기도했으며, 各地方의 신문과방송 TV등에서는 강연회예고보도와 강연내용을 자세히보도해주었다.

한편 各地域別 강연회가 끝난후 各地域東友會에서는 演士를초청, 만찬회를 열고 母校의 발전方向등에 대한 모색과, 同門相互間의 유대강화를 돈독히 했다.

◇第2회학술강연회성과표

地城	演士	聽衆	東友會協助任員	母校責任者
春川	張庚鶴 金秉玉	900	千世郁 김선중 李益柱 沈定根	朴秀根
溫陽	徐廷柱 李丙疇	2,000	崔明烈 채도병 朴基瑞 강전선	金鍾玉
天安	〃	1·300	權蓮玉 한인섭 鄭奎호 조명환	〃
清州	徐廷柱 閔丙天	900	權重聲 崔鍾泰 박재수 김태호	柳在燁
大田	徐廷柱 金秉玉	900	黃帝周 李在福 李演浩 임천준	李璜雨
裡里	洪庭植 趙演鉉	2,000	朴항植 유학선 조영래 배장열	柳豊雲
全州	〃	500	辛鉉根 김동문 김상수 전영의	申昌俊
井州	〃	1,000	宋榮會 이채훈 閔慶鳳 이영환	李載炯
光州	〃	800	鄭根謨 朴正奎 洪淳鐸	金容樂
仁川	李鍾麟 李箕永	2,000	孟殷在 金濟東 劉基棟 金贊鎔	張用喆
金泉	李龍範 黃壽永	2,000	李憲永 朴 武 洪 翼 金建默	宋 赫
大邱	徐廷柱 黃壽永 閔丙天	800	李禹出 朴辰熙 金相俊 南光朝 吳南洙 金炯秀	〃
〃	閔丙天	1,800	<金泉高校>	〃
釜山	徐廷柱 張庚鶴	700	朴東昊 金容彩 徐晶洙 南基碩	吳國根
馬山	〃	MBC KBS	—TV대담	〃
晋州	〃	2,500	崔載浩 김상조 엄효인 김재생	黃永洙
江陵	李箕永 趙演鉉	800	鄭義昌 鄭義昆 김진안 權五一	金鍾玉
水原	李鍾麟 李箕永	700	趙正煥 洪思日 朴志源 洪昇九	張用喆

「東國人의 밤」 12月16日세종호텔

77年度 임시총회겸「東國人의 밤」행사가 오는 12月16일(金) 오후6시부터 市內충무로 世宗호텔 해금강홀에서 열린다.

이날 모임은 1·2·3부순서로 나뉘어 제1부는 임시총회、제2부는 東國을 빛내준 同門祝賀宴및 우수支部(會)표창、제3부는送年파티 순서로서 행운권추첨과 장기자랑이 있게된다.

다사다난했던 丁巳年한해를 보내면서 送舊迎新의 情을 나누는 이 자리에는 동문·교수·직원등 全東國人이 참여하게 된다.

◇A조決勝에 앞서 양팀선수들이 善戰할것을 약속하며 악수를 교환하고있다.

제3회 會長盃테니스 閉幕

26개팀 參加

柳豊雲·申日植(A조) 李智永·尹範大(B조) 金潤默·具滋秀(C조) 優勝

제3회 同窓會長 純銀盃쟁탈 테니스大會가 지난10月30日(日) 金遺腹동창회부회장등 任員 다수와 前年度 A組우승팀인 朴濟吉·李昌億組등 선수 1백여명이 참석, 盛況을 이룬가운데 모교 敎職員·學訓團테니스코트에서 열려 A組는 柳豊雲·申日植組가、B組는 李智永·尹範大組가、C組는 金潤默·具滋秀組가 각각영예의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개회식은 오전10시 尹天泳동창회사무국장의개회로 宋基成(48·혜전·변호사·東國테니스會長) 집행위원장의 人事、金裕松(52·經·모교敎授) 심판위원장의 경기상의 주의사항、朴祥鎬(68·法·明星女中) 선수의선서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大會는 총26개팀(A조=8、B組=9、C組=9팀)이 출전하여 ABC各組 복식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렸는데、敗者부활전까지 가져 한층 경기가 熱氣를 띠었다.

한편 이날 大會를 위해 李瑄根모교총장、宋基成동국테니스會長、錢昌源·崔禮炯동국테니스회副會長이 各各 金一封을、李根雨동국테니스회 간사장이 페난트 1백매등을 희사했다.

※各組別 入賞팀 명단

◇A組 ▲우승=류풍운·신일식組(在職同門A팀) ▲준우승=백우현·서용진組(고려화학팀) ▲미기상=박제길·이창억組(同期팀) ▲감투상=박주순·백수기組(전산원팀)

◇B組 ▲우승=이지영·윤범대組(在職同門B팀) ▲준우승=김준덕·황향근組(국세청팀) ▲미기상=김헌규·김용락組(교직원B팀) ▲감투상=송석방·조정기組(학훈단팀)

◇C組 ▲우승=김윤묵·구자수組(국회팀) ▲준우승=윤주억·김홍렬組(食工科팀) ▲미기상=홍영백·안준옥組(사범대팀) ▲감투상=오정권·김종호組(교직원C팀)

會長에 宋基成동문 留任

東國테니스會 副會長1人늘려

◇宋 회장

東國테니스會 77年度정기총회가 지난10月30日(日) 오후6시 모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려 會長에 宋基成(48·혜전·변호사) 동문을 유임시키는등 임원 선출과 사업보고가 있었다.

이날 제3회동창회장 純銀盃쟁탈테니스大會를 마친 40여명의 회원들은 酒類와 茶菓를 들면서 화기애애하게 총회를열고 조직강화를 위해 부회장 2人을 3人으로 늘리기로 會則을 수정、새임원을 선출했다.

회원들은 또한 정기적인 친선경기를 보다 강화、체계화시키고 내년부터 동창회장배大會를 9月로 앞당겨줄 것을 전의하기도했다.

▲회장=宋基成 ▲부회장=錢昌源(57·經·모교 경상대학장)、崔禮炯(57·經·한국발효공업Co.監事)、朴鍾管(58·經·조달청총괄과장) ▲총무이사=吳正權(57·經·모교 교무과장) ▲財務이사=朴忠一(60·法·신흥인쇄Co.社長) ▲競技이사=金益相(65·法·원주지청檢事) ▲涉外이사=陳宗龜(62·經·조흥은행 영업부차장) ▲監事=趙旺基(51·經·모교 경상대교수)、金俊德(58·數·동보미싱공업사대표) ▲간사장=李根雨(68·英文·한국바이린Co.) ▲간사=白禹鉉(70·化·모교 전산원강사)

明星女高定總 會長에 김준형同門

明星女高東友會는 지난10月17日 同校에서 회원 全員이 참석한가운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金俊형(66·佛) 동문을 선출했다.

▲회장=金俊형(66·佛) ▲부회장=李昇熙(63·國文) ▲간사장=張在烈(70·英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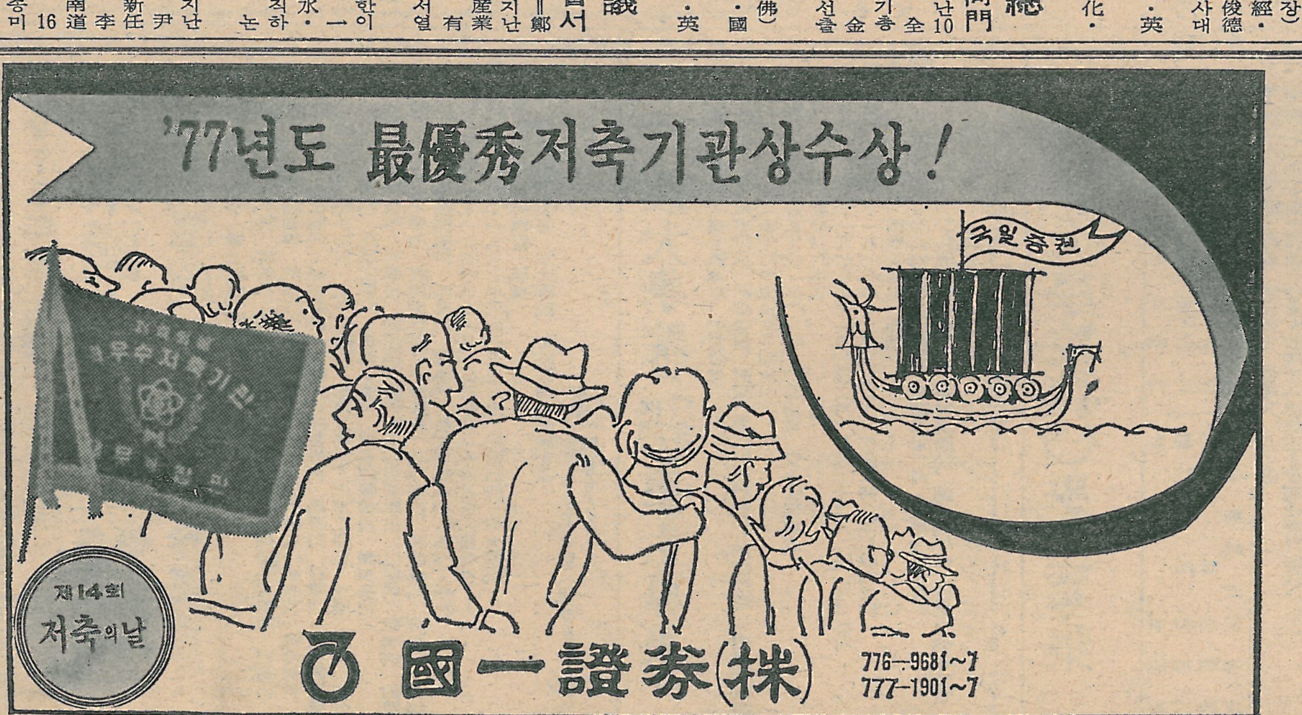
分會조직論議

全南支部理事會서

全南支部東友會(회장=鄭根謨) 11月 理事會가 지난 8일 李相甫(52·經·産業銀行광주지점장)동문을 有司로 市內 송미식당에서열렸다.

15명의 理事가 참석한이날 理事會는 年會費의 一括납부의전과 木浦·麗水·順天지방에 分會를 조직하는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한편 10月理事會는 지난 10월5일 光州地法판사 尹汝達(68·法)동문의 新任理事新入환영회를 겸해 李相穆(49·전문·農協全南道支部長)동문을 유사로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미식당에서 열었었다.



最優秀貯蓄機關으로서의 저희 國一證券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最高의 信用과
最大의 奉仕精神 아래
最新의 調査와 情報로
企業家 여러분의
資金調達窓口와
投資顧客 여러분의
財産增殖機關으로서
最善의 努力을 傾注하고 있읍니다

東友提言

스포츠中興의 새歷史의 章을

崔 載 福（56·國文·有元建設（주）전무이사·本報 編輯委員）

國力의 伸張 때문인지는 몰라도 요즘 우리 國民들의 스포츠에 대한 熱意나 關心、그리고 스포츠를 관람하는「매너」는 과히 先進級이라 할수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 때문인지는 몰라도 母校를 떠난 우리들의 母校 運動部에 대한 關心度도 여간 뜨거운 것이 아니다。

新聞의 스포츠란이나 TV의 스포츠뉴스를 듣거나 볼때마다 예민한 촉각은 母校 이름에 쏠리곤 한다。

그러나 섭섭하게도 우리 母校 運動部의 活動은 한번도 우리의 이 불같은 慾求를 充足시켜준적이 없다。

절실했던 아쉬움、이것은 나만이 가져본 慾求不滿 그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71年의 歷史와 傳統을 자랑하는 大東國、常勝 東國의 熱唱은 끝내 헛된 口號로 그쳐야만 할 것인가?

우리는 年前 李瑄根총장께서 學術과 體育의 一大中興을 천명하고、學術과 體育部門에 대폭적인 支援을 약속함으로써 큰變化가있을것으로 期待가 컸었다。그로부터 어언1年、아직도 우리는 만족할만한 結實에 박수를 보내보지 못했고 석연한 解答도 듣지 못하고있다。

이는 우리 選手들의 力不足때문인가、아니면 學校當局의 支援不足때문인가?

보다 더 냉정히 분석해보면 問題의 結論은 여기서 끝낼것이아니라 우리 3萬 東國人의 共同責任으로 그 結論을 물어야 옳을것이다。

이를테면 우리 모두가 母校選手들의 勝負結果에만 집착했지、그 育成策이나 支援에 대해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 해온것이 사실이다。

명예로운 優勝의 感激을 가슴에 안고 기뻐하는 다른 學校의 경우를 지켜보면 解答은 自明하다。

그들은 財團과 學校、同窓會와 모든 同門 個個人이 혼연일체가 되어 戰爭을 방불케하는 選手들의 스카웃戰에서부터 돕고 키우며 이끌어가고있다。그것이 바로 그들의 校勢라고 말할수있을지모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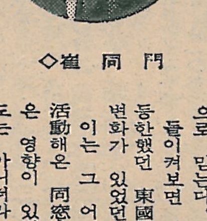
그렇다면 大東國도「大」字가 붙어 無色할정도가 아니라면、東國의 校勢도 이젠 水準級엔 이르렀고 歷史와 傳統의 自負를가져 부끄럽지 않을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알려진바에 따르면 이번 돌파구를 찾지못하고있던 母校 野球部 監督에 裵星瑞前嶺南大 야구부감독을 초빙했다는 消息이다。자못 고무적이다。

野球界선 그탁월한 指導能力과 스파르타식 强訓으로 選手의 精神과 體力부터 改造한다는 定評있는 勇將이라 새삼 期待가 앞선다。

그러나 아무리 탁월한 智謀와 力量을 갖춘 勇將이라 할지라도 그를 뒷받침할 올바른 參謀나 戰力이 없어선 한갓 無用의將이되고 말것이다。

이미 금년도 시즌은 지나고말아 때늦은감은 많지만 此際에 몇몇 이름있는 高校選手들을 스카웃해서 戰列을 가다듬게 되었다니 새로운 期待感이 앞선다。



◇崔同門

이와같은 조짐은 71년 歷史以來 처음있는 태동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이일련의 氣運은 비록 野球部에서 비롯된 일이지만、現存하고 있는 모든 運動部에도 擴大되어 그야말로 大東國 스포츠 中興의 새歷史의 章을 열어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機會도 잘捕捉해서 성숙케해야지 그렇지 못하면 더욱더 큰 失望이 우리를 기다릴 것이다。

이에는 물론 學校 當局의 소신있는 運動部의 運營과 보다積極的인 뒷받침이 있어야하겠지만 全東國人의 合心과 協力、그리고 참여가 없어서는 매우 어려울것으로 믿는다。

돌이켜보면 지나치게 母校일에 등한했던 東國人의 자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것이 사실이다。

이는 그 어느때 보다도 크게 活動해온 同窓會의 움직임에도 많은 영향이 있었겠지만、滿足할정도는 아니더라도 그간 擴張된 校勢에도 그 영향은 있었으리라 믿는다。

첫술에 배부르는 법 없드시 過慾은 피하고 서서히 우리 모두가 合心、團結해서 東國스포츠와 母校發展을 위해 서로서로가 一力을 다해줄것을 감히 이欄을빌어 提言하는 바이다。

同門探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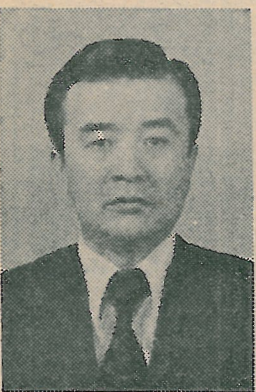
國一證券株式會社 代表理事

金鍾洙 동문

信用·奉仕·調査를 企業信條로

금년도 最優秀貯蓄機關賞 수상

“모교의 發展만이 同門의 큰기쁨”



○…지난 10月25日제14회「저축의 날」기념식에서 77年度 最優秀貯蓄機關으로 뽑혀 財務部長官賞을 수상한 國一證券（株）을 이끌고 있는同社 代表理事 金鍾洙（59·經）同門—。

『全體 任·職員들의 團合된 勞苦의 結晶이지요』라고 功績을 종사원모두에게 돌리는 金同門은 『이 기쁨을 平素 아껴주시는 고객들과 함께나누고 싶다』고 수상소감을 피력한다。

이번 수상은 會社창설 17년만에、또한 증권업계로서는 두번째 차지하는 영광으로 內資調達、財形貯蓄、流通市場寄與度、기타업무一般의 遵法事項등이 우수한점을 들어 선정된 것。

○…金同門은 보편화되어가고 있는 證券이『貯蓄手段、금융재산의 운용增殖、企業資金조달등에서 나날이 각광을 받고 있는것은 利息增大、安定性、換金性이 有利하기 때문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證券의 一般化와 發展幅은 매우 전망이 밝다고 내다본다。

이에 便乘한 國內證券界의 現況은 27개증권회사에 자유매매上場會社數는 3백13개회사、주식의 종류는 4백70개종목에 이르고 있다。또한 거래되는 株式數는 1조9천5백10억株、하루 평균매매액은 5백여만주로서 금액으로 따져 약50억원이고 증권인구만도 약1백만명정도 된다。그러나 정부의 계획은 1980년도까지 상장회사數를 5백여개로、증권인구를 전체인구의 10%인 3백80만명정도로 잡고 있다는 것。

○…증권계의 권위인金同門은 증권업이란 서비스·情報산업이기 때문에 『最高의 信用과 最大의 奉仕、最新의 調査와 情報제공을 기업이념으로 삼고 있다』면서『기업자금조달에 있어서 간접금융체제보다는 증권시장에서의 직접금융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다』고 일러주기도 한다。

한편 金同門은 企業公開會社인 國一證券의 자랑은 『전종업원의 기업참여와 봉사기관으로서의 성실한 고객봉사에 단합하고 있으며、고객과 더불어 會社가 발전한다는 信念으로 모두가 최선을다하고 있는 점』이라고 전해준다。

○…佛教信者인 金同門은 모교발전에도 깊은 관심을 비추고는 『同門의 가장 큰 기쁨은 母校의 알찬 成長뿐』이라면서 『留級制의 철저、無能教職員의 과감한 교체등 경영쇄신이 아쉽다』고 밝힌다。

○…財務部에서 오랫동안 奉職한바 있는 金同門은 대성산업（주）상무이사를 거쳐、70년 東洋證券을 창설코 초대사장에 취임하였으며、75년 현 國一證券의 代表理事로 취임、증권계에서는 잘 알려진 人物이다。

또한 本會이사、東錄會회원으로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金同門（47歲）은 부인 南宮원（44歲）여사사이에 2男一女를 두고 있다。취미는 登山。

現住所

「現住所」는 바로 여러분의 近況입니다。各職場마다 會員名單을 正確히 파악하여 提報해 주시기 바랍니다。여기실린 명단은 계획중인 各職場別 명부 발행의 귀중한 자료이오니 많은 協助바랍니다。

韓國自動車保險

▲박은회（60·英文）＝대표이사
▲추동헌（64·大院）＝기획실장
▲정성열（77·演映）＝기획실
▲고원석（75·大院）＝감사실차장
▲이명길（ ）＝감사실과장
▲박영록（74·經營）＝총무부
▲이동진（68·經營）＝보상지도부
▲정승도（69·商）＝전산부대리
▲김선을（71·物）＝전산부
▲김유진（73·貿）＝〃
▲장정환（77·美術）＝전산부
▲정하장（69·農）＝안전관리실
▲송병삼（67·商）＝보상사무소과장
▲이영일（76·經院）보상사무소대리
▲김기환（58·哲）＝보상사소소
▲이규성（68·食工）＝보상사무소
▲도상집（67·國）＝보상사무소
▲김용정（65·法）＝중부지점
▲문점용（77· ）＝〃
▲석영호（74·경영）＝〃
▲이영진（ ）＝중부지점
▲이종록（63·經）＝동대문지점과장
▲오태갑（61·政）＝〃
▲김창환（58·英）＝남대문지점과장
▲이현상（76·經院）〃
▲김영삼（ ）남대문지점
▲박철（73·經）〃
▲황일창（74·經營）〃
▲이홍규（69·經營）부산지점
▲권태동（72·土木）〃
▲이정웅（ ）부산지점
▲조규식（61·經）인천지점차장
▲오영일（66·商）성남사무소
▲김종석（65·政）춘천지점
▲장철종（57·法）천안지점과장
▲경용현（67·商）천안지점
▲최윤호（60·經）대구지점과장
▲김상완（68·農）대구지점
▲지남운（56·經）김천지점
▲구종서（56·法）마산지점장
▲강대하（71·經營）울산지점

農業協同組合

◇中央會

▲우종만（49·文）지도부장
▲백성현（59·法）비서실장
▲허양도（63·法）교육과장
▲서용호（62·經）농산물검사과장
▲박용모（61·法）검사부검사역
▲이원용（59·國文）축산과
▲이내전（61·經）학원사무국
▲홍영수（58·政）용산공판장
▲안덕환（55·政）영업부
▲백남찬（53·英文）신촌공판장
▲한세희（63·經）관리실
▲안강열（64·政）안전계획실

◇서울市組合

▲오홍명（66·農）홍보실 홍보역
▲권승중（69·농경）지도과대리
▲양무영（69·농）저축과대리
▲윤명도（71·농생）신용보증사무국
▲홍장식（71·농경）공제부저축보험과
▲기인종（73·經）사무개선국
▲최규형（72·농경）사무개선국
▲김중회（72·농경）외자부
▲유두상（74·경제）이용운송국
▲이신백（75·농）외자부
▲전영훈（76·貿）무역사업소
▲김현구（76·〃）〃
▲김일훈（61·經）국회출장소장
▲최돈각（63·英）기획부총무과장
▲남준태（53·政）평화지소대리
▲원용설（62·英）본소저축추진과
▲이근휘（59·法）본소관리과
▲김칠봉（63·法）시흥동지소
▲이풍재（64·경제）통일로지소
▲유규하（66·〃）본소기획과
▲남기식（63·商）시흥동지소
▲박호영（62·農）용산지소대리
▲민영로（63·經）한강로지소대리
▲이규완（69·法）갈현지소
▲이정일（70·國）뚝섬지소
▲김남섭（71·統計）용산지소
▲노재길（72·경영）성동지소
▲김봉식（72·林）용산지소
▲박찬일（70·농경）불광동지소
▲최길호（71·商）본소총무과
▲김달수（72·商）본소관리과
▲최현배（72·經營）평화지소
▲홍영수（58·政）농산물 공판장 용두분장

◇地方組合

▲이상록（49·전문）전남지부장
▲송은기（62·英文）광주지소장
▲원광희（61·經）경북지부차장
▲김상태（72·경영）부산지소
▲심갑식（61·經）화성군조합차장

1978年度 前期

東國大學校（各大學院學生募集）

大學院（男女）學生募集

一、募集學科및 課程（博士및碩士課程）
㉮碩士課程＝佛教學科 哲學科 印度哲學科 國語國文學科 英語英文學科 史學科 演劇映畵學科 數學科 物理學科 化學科 統計學科 法學科 政治學科 警察行政學科 經濟學科 商學科 經營學科 農學科 林學科 農業經濟學科 應用生物學科 電子工學科 電氣工學科 土木工學科 建築工學科 高分子工學科 化學工學科 食品工學科 工業經營學科 體育學科
㉯博士課程＝佛教學科 哲學科 國語國文學科 英語英文學科 史學科 數學科 物理學科 化學科 應用生物學科 法學科 政治學科 經濟學科 農學科 林學科 農業經濟學科 農學科 林學科 農業經濟學科 食品工學科
二、願書交付및接受…一九七七年十一月十五日부터 十一月三○日까지
三、銓衡日字및場所…一九七七年十二月三日（土）午後二時 本大學院
四、銓衡方法…筆答試驗및 面接
※其他詳細한 것은 本大學院 教務課에 問議할것
電話｛交㉗8131～9（구내237） 直㉑3256

行政大學院（夜間男女）學生募集

一、募集課程및學科…碩士課程및 研究課程
①行 政 學 科…人事行政 組織管理 財務行政 計劃行政 都市行政 開發行政專攻（觀光行政專攻은 申請中）
②安保行政學科…公安行政 國防行政 防衛産業 安全管理專攻
③教育行政學科…教育行政專攻
二、願書交付및接受…一九七七年十一月七日（月）부터 十二月二日（金）까지
三、銓衡日時및場所…一九七七年十二月三日（土）午後二時 本行政大學院
四、銓 衡 方 法…書類銓衡및 面接
五、特 典…①公務員全員（教員、軍警포함）에 奬學金支給함 ②其他 考試奬學金、優等奬學金、總長奬學金、女學生奬學金등 特典있음
電話（直）㉗8574（交換）㉗8131～9 ㉗8141～5（272）

經營大學院（夜間男女）學生募集

一、募集專攻

人事勞使管理專攻	貿易學專攻
生産管理專攻	經營法律專攻
財務·稅務·會計專攻	保險管理專攻
市場管理專攻	電子情報處理專攻

二、募集人員＝碩士課程 研究課程 各專攻 若干名
三、銓衡方法＝碩士課程＝銓衡및面接、研究課程＝書類銓衡및面接
四、願書交付및接受期間＝一九七七年十一月十四日（月）부터 一九七七年十二月九日（金）까지
五、銓衡日字＝一九七七年十二月十日（土）午後二時
六、銓衡場所＝本經營大學院
七、特典＝①貿易專攻者는 一年修了後 貿易士필기시험科目上의 免除혜택이 있음 ②電子情報處理（EDPS）및 生産管理專攻은 本校의 컴퓨터센터를 利用할수있음 ③本大學院 在學生의 在職企業으로부터 研究生의 委託研究및 共同研究등의 依賴에대하여는 特別히 優待함 ④軍·警 教育公務員 一般公務員및 女學生의 全員에대하여 授業料의 半額을免除함 ⑤夫婦學生의경우 婦人에 대하여는 授業料의 特別免除惠澤이있음
電話｛（直）㉗8140 （交）㉗8131～9（274）㉗8141～5（274）

東國大學校

釜山支部 정기總會 개최

11月5日 高麗호텔

會長에 朴東昊동문

釜山支部 1977年度 정기총회가 지난 5일 오후4시 시내 서면 高麗호텔 3층에서 1백여회원이 참석、성황을 이룬 가운데 열려 신임회장에 朴東昊(57·林·효성수산Co.사장)동문을 선출하는등 任員선출에 이어 「칵테일 파티」로 회원상호간의 친선을 도모했다.

◇朴 會長

이날 총회는 徐晶洙(68 政外·太平洋化學釜山支店과장)동문의 개회선언및 경과보고에 이어 李康郁(53·經·변호사)동문의 격려사、朴東昊(57·林)준비위원장의 人事、本會 尹天泳사무국장의 축사가 있은다음、임시의장에 李種源(부산남中校長)동문을 선출하여 회의진행을 一任했다.

이날 참석회원들은 釜山支部조직의 재정비、강화를 골자로한 회칙(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곧바로 임원선출에 들어가 고문3人、회장1人、부회장5人、감사2人을 선출했으며 理事및 간사장의 임명과사업계획등은 금명간 회장단에서 결정토록 위임했다.

한편 총회가 끝난뒤 참석회원들은 高麗호텔 스카이라운지에서「칵테일·파티」를 열고 화기애애하게 情談을 나누면서 同支部의무궁한 발전을 기원했는데、이날 파티費(30만원)는朴東昊회장이 희사했으며、朴東昊、金容彩、李種源、辛翔教동문의 부인들과 대한불교금강염화회(회장=金法懸동문) 직원일동이 음식준비등 각별히 지원해 모임이 한층 돋보였다.

▲고문=李康郁(53·經·변호사)、金容彩(54·法·고려호텔·제일호텔사장)、李種源(42·혜전·釜山南中교장)

▲회장=朴東昊(57·林·統一主體國民會議대의원·한국반공연맹釜山市支部長·대형기선저인망수산업협동조합장·효성수산Co.사장)

▲부회장=南基碩(61·法·善花女商교장)、金和燮(58·法·釜山市기획관리실장)、李鍾成(56·經·民主共和黨경남道連絡室長)、朴經烈(60·英·釜山大學校英文科주임교수)、申相斗(64·法·釜山地檢 檢事)

▲감사=金善斗(53·경·금강섬유공업사社長)、辛翔教(52·經·고려세멘트釜山地方특약점협회장)•

經營大學院 任員야유회

후배격려금 金一封전달

經營大學院東友會(회장=金完基)의 月例이사회겸秋季임원야유회가 지난 10월30日 24명의 임원및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송추에서 였렸다.

이날 회원들은 5臺의승용차에 分乘、송추에서 모임을 갖고 귀로에 統一路를 거쳐 임진각관광도 겸한다음 해산했다.

한편 회원들은 이보다앞서 오전에는 成大에서 열리고 있는 제4회문교부장관배쟁탈 전국特殊大學院체육대회에 참석、후배들을응원하고 격려금으로 10만원을 찬조했었다.

裡里市 창립총회

회원30명

會長에 朴流植동문

全北裡里市東友會의 창립총회가 30여명의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5일 오후3시 市內「미락」음식점에서 열려 초대회장에 朴항植(50·國文·圓光大學校교수)동문을 선출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會員이 30여명인 裡里東友會는 이날 3個月만에 한번씩 정기총회모임을 갖기로하는한편、주위의 회원발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칙제정은 회장단에 一任하여 다음 모임때 인준을 받도록 했는데 연락처는 市內중앙동1가46 신한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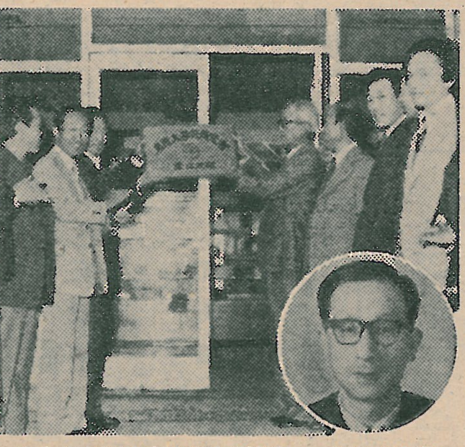
▲회장=朴항植

▲부장=조영래(66·法·대한통운 대장촌지점장)

▲간사장=裵장烈(73·經 신한당金銀房대표)

全北支部 현판식거행

全州市 中央洞 구라파제과서



◇全北支部현판식광경<원내는 辛鉉根회장>

"相互團合에 최선"결의

定期총회도

會長에 辛鉉根동문 선출

全北支部 東友會(회장=辛鉉根)현판식이 지난 10月20日 오후6시 辛會長을비롯한 회원 20여명과、학술강연회차 전주에 온 모교洪庭植·趙演鉉교수·申昌俊총무과장·李載炯체육주임·柳豐雲학적주임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사장 김상수同門이 경영하는 市內중앙동3가29 구라파제과에서 거행되었다.

이날 현판식을 가진다음 회원들은 보다 단결하여東國人의 긍지를 살려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이에앞서 10月18日에는 정기총회가 구라파제과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東友會이사를 보강하는등 임원개편과、상호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기위한諸방안등을논의했다.

▲고문=吳明淳(48·전문·한양신용금고社長)

▲회장=辛鉉根(49·전문·全北新聞부주필)

▲부회장=全東汶(49·전문·事業) 田英의(56·史·北全州전신전화국장)

▲이사=전용하(전주연초제조창)、김용우(세무사)、이정규(全北공무원교육원)、유성종(생협이사)、이헌호(삼목상사대표)

▲간사장=김상수(구라파제과代表)

서울信託銀行 첫 理事會

會長에 金春顯동문 선출

서울信託銀行東友會의 첫 이사회가 지난 10月21日에 열려 회장에 金春顯(58·經·영업부차장)、부회장에 崔本軾(63·商·종로3가지점代理)、간사에 元鍾琓(70·行·人事部代理)、崔漢相(71·商·태평로지점 代理)、崔錫昌(75·經營·勞組교선부장)동문을 각각선출했다.

同東友會는 지난 10月13日 창립총회를 열어 15명의 이사를 선출하여、회장단 선출을 이사회에 委任한바 있다.

韓國住宅銀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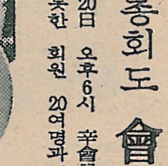
신입會員환영회

韓國住宅銀行東友會(회장=金在基)의 신입회원환영회가 白南伸고문등 회원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4일 市內光化門반점에서 열렸다.

鄭在皓간사장의 사회로열린 이날 모임에서 金在基회장은『「나」보다는 우리의 同門이라는 자세로 적극 참여해줄것』을 당부했다. 이날 신입회원은 최지근(70·경영) 동문등 4명이었다.

警察行政學科 定總

會長에 李璜雨 동문



◇李 會長

警察行政學科東友會 제11차 정기총회가 지난 10月22일 오후6시 市內 풍전호텔2층 별실에서열려 회장에 李璜雨(67·警行·모교教授)동문을 선출했다.

40여명의회원과모교崔要煥법정대학장을 비롯 同科교수전원이 참석한 이날 총회에서는 任員選出에 이어 事業計劃을 토의한다음 茶菓로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회장=李璜雨

▲부회장=崔啓洙(保安司소령)、金大圓(治安本部 기획과 警正) 李相鉉(國際通信과장) 田泳和(國際問題研究所)

獎學金 모금등을 결의

商貿會、첫 理事會 소집

商·貿易學科東友會(商貿會)의 신임회장단 출범 첫 理事會가 지난10月28日 오후 7시 黃龍浩회장등 40여명의 理事와 모교恩師인 錢昌源경상대학장등이 참석한가운데 市內 광교 태화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은 黃會長의人事말에 이어、모교 錢昌源學長의 격려사가 있은다음 商貿會의 발전책등에 관해 진지하게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每年 2명이상씩의 후배에게 줄 장학금을 만들자는데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한편、공인회계사시험에 후배들이 대거 합격할 수 있도록모교측의 바람직한 支援을전의하기도 했다.

제3차 編輯會議

崔載福위원 有司로

本報 제3차 편집회의가 지난 4일 편집위원 전원이 參席한가운데 崔載福(56·國文·有元建設(주)전무이사)동문을 有司로 열려 제19호 편집계획 수립과 會報운영등을논의했다.

信用保證基金 임원選出

會長에 박재규동문

信用保證基金東友會(간사장=李熹一)정기총회가 지난 10月25日 오전10시 市內J다방에서 열려 신임회장에 박재규(60·經·신용조사1부장)동문을 선출했다.

李熹一(63·政·경영지도부과장)동문사회로 열린 이날 총회에서는 친선도모방안과 기금적립등 현안문제를 논의、東友愛로 굳게뭉쳐 會長團을 中心으로 적극적인 활동을펴기로 결의했다.

▲고문=鄭在哲(52·政·理事長)、張韋相(67·大院·전무이사)

▲회장=박재규

▲부회장=이기범(49·전문·경제조사부과장)김진상(62·英·신용조사부과장)

▲간사장=김동협(71·經·심사부代理)

▲간사=이화영(73·行·영업부)

在釜東國會 추계야유회

夫婦同伴 慶州「화랑의집」서

◇夫婦同伴한 추계야유회(원내는金容彩회장)

釜山支部東友會의 후원친목써클인在釜東國會(회장=金容彩)의 추계야유회가지난 10月30日(日) 姜仁植동문등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화랑의집」과「룡일전」방문을겸해 열렸다.

이날 회원들은 各自 夫婦同伴하여 축구、풍선터뜨리기、二人三脚경기등으로즐거운 하루를 보냈는데、金容彩、朴東昊、南基碩、李種源동문등이 특별협찬했다.

廣州郡정기총회

추계야유회겸해

京畿道廣州郡東友會(회장=李光薰)제3차정기총회가 지난10월30일 회원 20여명이 참석한가운데 남한산성에서 야유회를겸해 열렸다.

◇개회식에서 本會 黃明秀부회장이 격려사를 하고있다.

″牙″山″郡″직″장″대″항″體″育″大″會″盛″了

牙山郡東友會서 每年개최

郡內기관장등 2백명參加

牙山郡東友會 주최 郡內직장대항 제10회친선배구대회겸 제3회 테니스대회가 지난16일 崔明烈회장등 30여명의 회원과 本會 黃明秀부회장、尹天泳사무국장、모교 李載昌교수、郡內의 郡守·警察署長·農協組合長·教育長·문화원장등 各기관장및2백여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온양 온천국민학교운동장에서 성대히 열렸다.

동문상호간의 친선도모와 地域社會개발에 이바지하고자 牙山郡東友會가 年例行事로 개최해온 同大會는 郡民잔치로서 朴基瑞간사장의 사회로 강전선부회장의 대회선언、전년도 우승팀인 牙山郡교육청의 우승기반환 순으로 이어 진행되었다.

大會長인 崔明烈회장의대회사、同지역出身國會議員인 本會 黃明秀부회장의 격려사、이진호아산군수의 축사、허진원온양경찰서장의 축사、李載昌모교教授의 축사가 있었으며、심판장인 李德潤(아산군배구협회장)同會고문의 경기진행상 주의사항을 끝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경기에들어갔다.

이날 폐회식에는 李德潤(50·전문) 朴之漢(57·農) 李恒敏(58·林) 동문등 역대회장이 직접시상하여한층 화기애애했는데、행사를 마친뒤 회원들은 D음식점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결과검토와 앞으로 더욱 발전적인 행사를개최키로 결의했다.

※이날大會의 戰績

◇排球(10개팀出戰)

▲우승=아산군청

▲준우승=온양경찰서

▲3위=온천국민학교

▲장려상=천도국민학교

◇테니스(14개팀出戰)

■복식

▲우승=온양女中高校

▲준우승=온양중학교

▲3위=충무수련원

▲장려상=아산군축산협동조합

■단식

▲우승=정재봉、이한조

▲준우승=강천성、김성우

▲3위=박택수、조병우

▲장려상=강원모、강춘수

제9회 東國山岳祭 盛況

月岳山 德周寺서 安全기원

東國山岳會(회장=金鎭福)주최 제9회 東國山岳祭가 지난 10月23日 忠北제천군所在 月岳山德周寺에서 열렸다.

無事故登山과 활발한 山岳活動을 기원하기 위해 每年 열리고 있는이 山岳祭에는 金鎭福회장을 비롯、崔載福편집위원、尹天泳사무국장등 동문 20여명과 山岳會員·교직원등 1백20여명이 참가하였었다.

江南종합터미날 社長취임
서울市在鄕軍人會長 활약

金 遺 腹
〈江南종합버스터미날(주)대표이사〉

金遺腹(51·政·本會부회장)동문이 江南종합버스터미날(주)사장으로 취임했다.

金同門은 예비역 將星으로 서울市在鄕군인회장으로 크게 활약하고있으며, 예편전에는 30사단장、高大학훈단장、駐越맹호부대부사단장등을 지냈었다.

金同門은 현재 한국·인도네시아協會회장、本會총무담당부회장、東國學院감사등을 맡고있다.

調達廳中央보급소장榮轉

金 有 一 〈調達廳〉

金有一(48·전문)동문이 調達廳중앙보급사무소장으로 영전되었다.

金同門은 조달청 기획관리관、부산사무소장등을 역임해왔다.

韓國合唱曲 제1집發刊
交通安全街頭캠페인 벌여

朴 恩 會
〈韓國自動車保險(주)代表理事〉

朴恩會(60·英文·한국자동차보험Co.社長·本會부회장)동문은「韓國合唱曲제1집」이라는 자신의 작곡집을 발간함과 동시에 지난10月25日、國立合唱團의 협연으로 成音社에서 同레코드판도 제작하였다. 同레코드판에는「모란이 피기까지는」·「청산리벽계수야」등 10曲이 수록되어있는데 朴同門은 한국作曲家協會 부회장으로 활약하며 남다른 才質을 보여왔다.

한편 朴同門은 지난10月25日부터 4일간 光化門네거리등에서 손수 교통안전캠페인을 벌이는등 전국적인 교통안전의 계몽사령탑으로 활약하기도했다.

韓國道路公社영업부장에

金 相 睦 〈한국도로공사〉

金相睦(50·國文)동문이 한국도로공사 영업부장으로 영진했다.

金同門은 援護處비서실장을 거쳐 韓國道路公社창설때부터 현재까지 비서실장으로 많은 일을 해왔다.

赤壁藝術燕등地域발전기여
「時調文藝」제1회作品賞

政 龍
新農中學校長〉

本店의 관리부·검사부등 各部署및 支店에서 20년여를 奉職해왔다.

韓一銀行검사역으로 전임

金 世 華 〈韓一銀行〉

金世華(52·政)동문이 한일은행 서교동지점장에서 本店검사역으로 전임되었다.

大林女中 교장으로 전근

韓 養 根 〈大林女中〉

韓養根(53·法)동문이 新林女中교장에서 大林女中교장으로 전근되었다.

韓一銀行南大門支店長 영전
東大門支店서 은행강도체포

沈 寅 燮
〈韓一銀行南大門支店長〉

沈寅燮(54·經)동문이 지난달 14일자로 韓一銀行南大門支店長에 영전되었다.

沈동문은 53年 同行 前身인 商工銀行에 入行, 중부지점 次長및 영업부차장을 거쳐 73년 한강로지점장으로 발령되어 첫 一線점포 책임을 맡았다. 이어 적선동지점장、동대문지점장등 금융계에서만 25년여를 몸담아왔다. 특히 동대문지점장으로 재직시엔 同점포 은행강도를 손수잡아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슬하에 1男2女를 두었으며、愛酒家로 알려져있다.

港灣廳次長으로榮進

文 明 麟 〈항만청〉

文明麟(54·政)동문이 港灣廳차장으로 영진되었다.

文同門은 교통부 수송조정실장등 요직을 지내왔다.

「저축의날」大統領표창

黃 龍 雲 〈韓一銀行明洞支店〉

黃龍雲(54·經·韓一銀行明洞支店長)동문이 지난10月25일 제14회「저축의날」기념식에서 貯蓄실적유공 大統領表彰을 받았다.

住宅銀行晋州出張所長 영진
同行內에 테니스部 창설해

鄭 豪 鎭
〈한국주택은행 晋州出張所長〉

鄭豪鎭(60·經)동문이 韓國住宅銀行晋

同門動靜

〈無順敬稱略〉

本人의 近況이나주위同門들의 諸소식등이있으시면 언제든지提報바랍니다.

東友斷想

家族的인 雰圍氣

李 殷 甲

벌써 많은 수의 후배들을 社會生活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을 보니 東岳의 울타리를 떠난 것이 퍽 오래된 느낌이다.

봄이면 숨막히게 밀려드는 아카시아의 향기, 여름이면 무성한 나뭇잎들의 合唱、그 사랑스런 우리의 보금자리에서 꿈을키워가던 시절을새삼돌이켜 본다. 어리석음으로 저지른 나의 실수를 묵묵히 감싸주던 은사、여러 교수님들의 따사로운 모습、리더쉽 워크샵의 즐거운 한때—.

마치「음악은 그 선율이끝나고 여운속에 떨리며 마음에 떠오른다」는 셸리의 詩처럼 지금도 낱낱이 살아있는 東岳의 하루 하루. 동창들을 만나면 그래서 기쁘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문득문득 모교의 자랑스러웠던 기억들을 되살곤 한다.

요즘은 직장생활이 바쁘다보니 모교소식에 접할 기회가 드물다. 어쩌다가 신문에서、방송에서、모교의 소식을 접하게되면 가족의 이야기인양 반갑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적극적이지는 못하지만동문들과의 회합을 자주 마련키위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저마다들 바쁘다보니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못내 아쉽다. 동문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못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한가지 제안할 것은 동창회 주도의 회합이 좀더 세밀한 부분까지 密度깊게 파고들어 마련되었으면 하는것이다. 특별히 무슨 親睦이나 직장 혹은 同期會위주로 모이는 회합의 특성을 살리면서 동문들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 문화행사를 주최했으면 한다. 물론 얼마전에 이루어졌던 테니스대회 같은 것은 퍽좋은 착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말이다.

비록 우리가 사회 각방면에서 일하고 있지만 마치한 캠퍼스안에서 활동하듯、우리 모두의 기쁨과 즐거움과 어려움을 共有하며 나눌수 있는 자리가 아쉬운 것이다.

모처럼 모교 東岳路를 오르면서 자랑스러웠던 지난날의 이야기들 속에 파묻혀 마음껏 숨을 들이마시며 이자랑스런 東岳의 옛일들을 갈이 이야기할 자리를 마련해주도록 부탁하고 싶어졌다.

東國人이 모이는곳에 언제나 믿음과 밝음이 있음을자랑하여야할 때인 것이다.

〈74·經營·韓一銀行勞動組合총무부장〉

市民회관별관에서 열린 同기념식에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南同門은 治安一線에서 公共의 안녕과 질서유지및 對民奉仕에 불철주야 공헌해 왔다.

「경찰의날」에 大統領표창

曺 聖 彬 〈治安경감〉

曺聖彬(64·法·內務部治安本部警監)동문이 제32회「경찰의 날」을 맞아 지난10月21日 治安一線에서 公共의 안녕질서와 對民奉仕에 불철주야 공헌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家具類 誠實組合長에 피선
서울市家具工協이사장직도

池 載 赫
〈德眞家具대표〉

池載赫(66·經)동문이 家具類誠實組合조합장으로 지난10月 피선되었다.

池同門은 지난5월에는 서울市家具工業協同組合이사장에 선임되기도 했는데、德眞家具의 代表로있으며 民主共和黨 中央委員으로도 활약중이다.

서울市 建設行政課長으로

南 相 壽 〈서울特別市書記官〉

南相壽(58·經)동문이 서울特別市 전설국시설관리과장에서 同건설행정과장으로 轉任되었다.

報院앞)에는 佛法을 듣고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데 金同門은 因果應報·忠孝思想·護國精神을 강조하며 殺生·도둑질·邪淫·飮酒·거짓말을 금하도록한 5개준수사항을 說破해오고 있다.

金同門은 합천海印寺서 尹古岩(前조계종宗正)스님을 은사로 得度했으며、因人6만여명에게 佛道를 심었다. 또한 佛法을 布敎하면서 4천여명에게는 受戒式을 올려 佛弟子가 되게하기도 했다.

保證基金 淸州支店長부임

鄭 求 徹 〈信用保證基金〉

鄭求徹(59·政·信用保證基金)동문이지난2일 信用保證基金 淸州支店(청주시북문로1가172 한국산업은행 청주지점3층)이 개점됨에따라 同支店長에 정식취임코 지역사회와 국가경제발전에 더욱기여하게 되었다.

鄭同門은 지난4월 同支店長으로 발령받아 그동안 同支店개설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해 온바 있다.

國際공인會計士會議에참석

朴 忠 煥 〈公認會計士會부회장〉

朴忠煥(59·經·韓善合同會計事務所대표회계사)동문이 지난10월9일부터 1주일간 獨逸 뮌헨에서 열린 제11차 국제공인회계사회의에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표단장으로 참석하고 귀국했다.

農協 國會出張所長 영전

金 日 勳 〈農協서울시組合〉

金日勳(61·經)동문이 農協서울市組合 지도부 경제과장에서 國會出張所長으로 영전되었다.

京畿럭비풋볼協會長 활약

李 丙 和 〈영진공사常務〉

京畿道 럭비풋볼협회 會長인 李丙和(61·경제‖(株)榮進公社상무)同門은 지난10월23일에 폐막된 전국 종별 럭비풋볼 종합선수권대회에 경기도 대표팀으로 인천부평중·인천기계공고·인천체전팀을이끌고 대회에 참가하여 중등부와 고등부는 우승、대학부는 준우승등 좋은 성과를 올리는데기여했다.

原州支廳 검사로轉任

문이 지난10월21일부터 스위스의 로잔느 보리에宮에서 열린 세계자유형레스링선수권대회의 한국팀主務로 활약하고 지난10일 귀국했다. 同大會에는 한국을 비롯、29개국에서 1백70명의 선수들이 出戰했었다.

世界레스링大會 銅메달획득

金 和 經 〈대한주택공사〉

金和經(73·貿)동문이 지난 10월21일부터 스위스 로잔느에서 개막된 世界自由型레스링선수권대회 페이급(48kg以下)에서 銅메달을 획득、한국선수중 유일한 메달리스트가 되었다.

榮進·轉補

▲徐容浩(62·經)‖農協中央會 공판부 농산물검사과장에서 유통계획과장으로.

▲元光喜(61·經)‖農協中央會 검사부 검사역에서 차장승진、경북道支部로 발령.

▲崔燉珏(63·英文)‖農協 강원명주군조합 차장에서 서울市組合 총무과장으로

▲千祺鎬(74·政外)‖大韓投資信託(주) 영업부로.

▲全雄(75·行政)‖새한종합금융(주) 기획심사부로.

▲林信喆(65·林·信榮證券(주) 明洞支店차장으로.

▲丁炳樂(67·警行)‖금전등록기판매메이커인 瑞興電機(주)의 東部出張所長.

▲한재훈(60·政)‖중앙전신전화국 수배과장으로.

▲尹泰京(76·國文)‖醫協新報편집부.

▲元泰振(68·經·환승산업(주)대표)‖극동실업(주)를 인수코 대표이사로.

▲이충웅(62·국문)‖대부고등학교 주임교사로.

▲尹暻珠(70·林)‖三和종합전자(주)에서 利川家電제작소 서무주임으로.

結婚

▲趙炳鳳(65·大院·제1무임소장관실보좌관)‖10月14日1시 영빈관서 長女결혼.

▲張弘道(66·經·韓國造幣公社)‖지난9月17日1시 세종호텔 해금강홀에서 崔 九회장主禮로 화촉.

발전을 기원합니다

祝

東國大學校 同窓會
仁川支部

고문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감사
간사장
간사

예명운
金齊東
金在澤
金殷夏
孟殷在
徐昌夏
崔慶植
金淳吉
金昌洙
김병설
홍성극
辛元夏
劉基棟
오영근

대한화약총포사
사장 예명운

仁川女子高等學校
校長 金濟東

화성산업사
대표 金在澤

國會議員
金殷夏

韓國敎育公社
代表 孟殷在

인천가전제작소
사장 徐昌河
공장장 전종모

삼신해운(株)仁川支店
지점장 최경식

韓國記者協會京畿道支部
지부장 金昌洙

仁川稅關심리분실
김병설

우련통운(株)
총무부장 홍성극

북한연구소경기사무소
소장 劉基棟

大韓保證保險(株)京仁代理店

東國의 傳統 〈13〉

—論著를 中心으로 整理해본—

國文學 (2)

東國傳統계발의 核心體役割

惠專系·權相老系·梁柱東系로 大別

다음 權相老系의 漢文學은 國文學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한채 오늘에 만족할 따름이다. 특히 光復이래 漢字廢止에 솔깃하여 朴漢永、崔南善、鄭寅普、卞榮晩의 찬란한 學統은 자취도 없어지고、다만 金映遂·權相老의 계통만이 희미할 뿐이다.

權相老박사는 佛敎學과 字學이 專攻이었으므로 國文學과는 소원한 느낌이 있다. 그러나 그의「朝鮮文學史」는 金台俊、趙潤濟의 著作의 주춧돌이 되었으며、「退耕譯詩集」은 譯詩의 계경을 밝혔으며「韓國地名沿革考」와「譯講三國遺事」등은 國學研究의 알뜰한 길잡이다.

이淵博은 東國文脈의 지경을 다지고 東國의 學統을 있게한 源泉이다.

이權相老系의 漢文學은 中央佛專이 絶頂이었다. 李在福、權尙夏、洪庭植、李元燮、車柱環등의 譯經·譯詩、그리고 中國文學研究가 出衆했다. 東國에 들어서는 禹貞相、徐京保의 佛經研究、李龍範、宋俊浩、安啓賢등의 史學、李丙疇의 杜詩와 韓國漢詩、李東林의 韻學、金起東의 漢文 小說등의 研究가 文脈을 이었으며、다시 趙承觀、崔世衡、孫八洲의 比較研究와 李鍾燦의 小樂府研究가 그 대강이다.

끝으로 梁柱東系의 學統은 오늘의 東國文學을 구성한 母胎요 原動이다. 따라서東國大學校하면 으레梁柱東박사를치키는 東國文脈의 鎭山이며 東國의 國文學을 오늘로 이끈 큰 스승이다. 그四庫의 學問과 雲錦의 文章과 懸河의講說과 等身의 著作은 東國文學의 거울이자 國學의 寶庫다.

이 梁柱東系의 學海에서 흘러내린 시내가 오늘의 東國文學이다. 따라서 東國의 國文學은 梁柱東의 分身임은 共認된 사실이다.

그 學統을 간추리면 杜詩諺解의 李丙疇、東國正韻의 李東林、李朝歌辭의 丁益燮、時調論의 朴한植과 李禹出、小說論의 郭夏信과 金泰均외에 盧철·金二洙가 있고 譯詩의 金宗吉이 있으며 高麗歌謠의 崔鶴璇、吏讀論의 洪淳鐸、民謠論의 玄平孝、小說史의 金起東、國語敎育論의 金聖培、時調論의 梁廉奎、盧溪歌辭의 李相寶、民譯의 李鍾出、高麗歌謠의 金尙億、比較文學의 丘仁煥外에 崔聖範、李庭卓、崔祇億、金東俊、金泰俊、裵현종、金駿雄、최중엽、吳亨錫、黃鎭性、安秉台、李鉉洙、林基中、黃良秀、金貞煥、徐萬洙、具壽榮、徐南椿、鄭台永등이 나란하고 한편 國語學에는 崔世和、金英培、康琪鎭 張泰鎭 崔範勳등이 研究를 거듭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國語學篇」에 미룬다.

以上을 종합하면 東國의 國文學은 東國을 빛내고 東國의 傳統을 세우는 核心體로서 精勵하는 東國文學部隊다.

이들은 거의 訓話와 概論에서 비롯하여 作家論과 作品論에 잠기고 있음을 본다. 이 論考는 대개「東國大學校論文集」、「東國大學校國語國文學論文集」과「東岳語文論集」등에 발표되고있다.

다만 아쉽다면 建學精神에 입각한 佛敎와 國文學、漢文學과 中國文學과 國文學등의 比較研究가 不振함을 指摘할수있다. 譯經도 좋고 國譯佛典의 解題도 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에 이은 內容檢討와 原典과의 考異는 손조차대지 못하는 實情임은 그 譯文과 그 論考가 立證하는 虛點이다. 그러므로 上代歌謠의 再分析과、李朝文學의 再整理와 放置된 漢文學의 考究와 敬遠하는 西歐文藝學의 빠른 섭취등은 東國의 國文學이 着手해야할 시급한 課題가 아닌가한다. 東國大學校의 國文學은 韓國의 國文學이요、韓國文學의 發散地임을 再確認할때 東國大學의 再起가 가능하다.

機先을 빼앗긴 東國의 國文學은 아직도 觀井의 視點에서 歷史와 전통만을 내세우는 愚直에 사로잡혀있는듯하다. 이 錯覺된 依存이 止揚되고 蟬脫할때 失地恢復도 [illegible] 이復興에의 [illegible] 깝다. 우선 東國文學人의 자아반성과 勇猛精進이 [illegible] 體制의 確立과 [illegible] 이요、셋째는 拔擢[illegible] 연구학원의 造成[illegible] 어야 비빈다」는 [illegible] 자리걸음에서 안[illegible] 객담이요、默默前進[illegible] 用語다.

東國의 傳統은 東國大學의 中興主를 기다린지 이미 오래다. 『더욱더 배울것 [illegible] 름이 진실로 배[illegible] 益多師是汝師)는 [illegible] 이 萬古에 흐른[illegible] 古流)를 爭取할 東國人의 姿勢요、東國文學人의 [illegible]

〈모교 李丙疇교수提供〉

李政龍(52·國文·和順新農中學校長)동문이 地域社會 後學들의 예술素質을 계발코자 發想、주최한 제3회 赤壁藝術燕이 지난10月18일 全南和順郡二西面 소재 赤壁광장에서 관내 기관장등 많은 人士가 참석、盛況裡에 열렸다.

文學·美術·書藝部로 나뉜 이날 행사는 道와 郡內의 자라나는 俊才들이 各自의 素質을 大自然속에 묻혀 마음껏 겨루었는데、지난 3일 盛大한 施賞式을 가졌다.

한편 바쁜 나날속에 25년여를 自由詩와 시조창작에 精進해온 李同門은 한국시조시인協會 전남지부에서 발간하는 文藝誌「時調文藝」第一回作品賞을 수상하기도 했다.

產業銀行光州支店長영전

李 相 甫 〈한국산업은행〉

李相甫(52·經)동문이 한국산업은행광주지점장으로 영진되었다.

李同門은 同行內 각부서를 거쳤으며、업무부차장으로 있다가 광주지점장으로자리를 옮겼다.

서울信託孔德洞支店長영전 銀行경력 20여년의 베테랑

朱 哲 成

〈서울信託銀行孔德洞支店長〉

朱哲成(55·經)동문이 지난달 서울信託銀行 孔德洞支店長으로 영전되었다.

朱同門은 63年 代理승격、76年 수유동예금취급소장등을 거칠때까지 종로·서대문·약수동·퇴계로·三一路·敦岩洞지점과

께 入行한 鄭同門은 영등포지점과 영업부·서무부등 各부서를 고루거쳤으며 최근에는 서무과장으로 同行의 살림살이를 도맡아왔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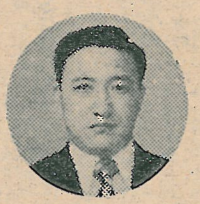
住宅銀行內에 테니스部를 창설하고 現在는 同간사로 있으며 住宅銀行東友會부회장으로 활약이 크다.

商業銀行新吉洞支店長전임

許 文 秀 (韓國商業銀行)

許文秀(57·經)동문이 한국상업은행서교동지점장에서 新吉洞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東海生命 全北영업국장영전 在學時節 축구부 主將지내



楊 秀 成

〈東海生命保險Co. 全北 영업국장〉

楊秀成(65·經營)동문이 瑞通그룹인 東海生命保險(주) 전북영업국장으로 영진되었다.

ROTC 3期生으로 派越복무하기도 한 楊同門은 70年 同社에 入社、本社총무과·감사실·영업과를 거쳐 동대문영업소장、남부영업소장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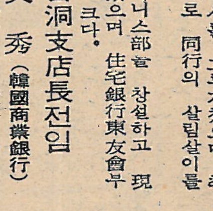
在學時節 축구부 主將이기도 했던 楊同門은 全北道內一圓의 업무를 담당할 중책을 맡은 것이다.

對民奉仕공로로 大統領표창

南 澤 善 〈治安本部경감〉

南澤善(57·法·內務部治安本部警監)동문이 제32주년「경찰의날」인 지난10月21日

學界서 地域社會에 이바지



沈 定 根

〈江原大學조교수〉

沈定根(64·政外·江原大조교수)동문이 77年度(제19회)江原道文化賞 人文社會科學부문을 受賞했다.

지난달18일、江原道文化賞審査委員會발표에 따르면 沈동문은 지난 71年度부터 現在까지 江原大學에 在職하면서 韓國豫算制度의 比較分析및 財務行政論을 발간했으며、行政管理에 있어서의 人間關係연구등 많은 論文을 발표、地域社會발전에 이바지한 공로이다.

每月 2回씩 佛敎思想강좌 囚人 6만명에게 佛道심어

金 法 慧

〈대한불교금강염화회장·金剛台주지〉

金泰完(法名=法慧·75·行院·대한불교금강염화회장·조계종 金剛臺주지)동문이 每月 2회씩 佛敎思想강좌를 열어 釜山市民들에게 佛心을 깨우쳐주는 한편 자질향상에도 크게 기여、화제를 모으고있다.

강좌가열리는 每月 첫째주、세째주 금요일 오후7시 한일예식장(대청동 美公

金同門은 64년 사법시험 1차에 수석합격한바있는 金同門은 군법무관을 거쳐 경주·大邱·영등포지검의 검사로 활약해왔다.

京畿道內 言論人축구대회主催

金 昌 洙 〈記者경기도支部長〉

韓國記者協會경기도支部長인 金昌洙(65·政外·仁川支部부회장)동문은 지난 10月29日 城南市공설운동장에서의 경기道內 記者들의 축제인 제6회 경기도내 言論人축구경기대회장으로 크게 활약했다.

金同門은 경기일보의 記者로 地域社會발전에 공헌해오고있다.

共和黨青年分科委 副委員長에

金 榮 龜 〈중립전기공업Co.〉

金榮龜(62·經)동문이 民主共和黨青年分科委員會 부위원장에 再任되었다.

金同門은 중립전기공업(주) 상무로도 활약중이다.

共和黨노동分科委 副委員長에

趙 鍾 學 〈光一전기代表〉

趙鍾學(65·經)동문이 民主共和黨 노동분과위원회 부위원장에 선임되었다.

趙同門은 청계아파트상가 대표이사 (現在는 理事)、大韓體育會力道聯盟이사장등을 역임했으며、현재는 光一·京一電氣상사代表로 있다.

한냉食品판매 常務理事로

韓 基 源 〈한냉식품 판매Co.〉

韓基源(65·法)同門이 한냉食品販賣(株)常務理事에 就任했다.

韓同門은 그간 사업일선에서 많은노력과 經驗을 體得한 事業의 베테랑이다. 同社는 農漁村開發公社와 한국냉장(株)의 製造品을 總販賣하고 있다.

世界레스링大會 主務로활약

金 世 炯 〈스카라극장부장〉

金世炯(66·商·스카라극장총무부장)동

10月8日 3시 서울예[illegible]

▲安正勳(76·史·공[illegible]) [illegible] 2시 종로예식장에서 [illegible]

▲車章煥(73·食工) [illegible] (金)12시 행복예식장[illegible]

▲南鍾玉(72·商·한[illegible])=지난 10月23日 오전[illegible] 실에서 화촉.

▲김종덕(70·經)=[illegible] 교예식장에서 趙明基박사[illegible]

▲鄭基燮(68·行·母[illegible]) [illegible] 아스토리아호텔 예식부[illegible] 長의 主禮로 화촉.

▲李信白(75·農經·[illegible])=지난 10月30日 오후[illegible] 황실에서 화촉.

▲朴哲(73·經·韓國[illegible] 支店)=오는 11月19日 [illegible] 22층 예식부에서 화촉.

▲李永雨(70·經營·[illegible]부)=11月16日 正午 아[illegible] 에서 화촉.

移轉·開業

▲金鎭福(52·政·國[illegible])=관악구방배동1의103호로 이사.

▲吳弘明(66·農·農[illegible])=도봉구쌍문동412~19[illegible]

▲鄭錫九(49·전문·한[illegible]사장)=관악구동작동 반[illegible]호로 이사.

▲金炯秀(58·國文·[illegible]邱支部부회장)=대구시[illegible] 1~72호로 이사.

▲洪鳳來(53·法·[illegible])=사무실을 종로구 [illegible] 또한 자택도 관악구 [illegible] 동502호로 이사.

▲鄭達泳(58·經·호[illegible])=영등포구여의도동 한양아[illegible]로 이사.

▲丁益燮(51·國文·[illegible])=광주시 서구신안동1[illegible]

慶

東友會報의 무궁

代表 오영근

영진통관(株)
부사장 홍현목

인천위생공사(株)
대표이사 곽재영

(株)영진공사
상무이사 이병화

오림포스관광산업(株)
상무이사 유자열
지배인 이영호
판촉계장 이응수

청일공사(관세업)
대표 정구홍

仁川體育專門學校
學長 이병욱

仁川水産協同組合
총무부장 추병복

인천주안상가(株)
대표이사 한봉현

인화사(토산품 대리점)
대표 이영식

대흥공예가구사
대표 이익환

진흥요업(株)
관리부장 김태우

경기은행
기획부장 김병록
안전실 김기태

한국수출산업공단
서무과장 최만수

水產業協同組合京畿支部
판매관 길정길

국제실업(株)
업무과장 김충국

삼아해운인천지점
지점장 김일호

제물포조기공업(株)
대표이사 김기대

앞서가는 東友會

韓國住宅銀行

◇住宅銀行소개

庶民住宅資金의 造成을 뒷받침하고 住宅資金의공급과 관리의효율화를 증대시키고자 설립된 韓國住宅銀行。

67年7月 住宅金庫로出發하여、69年 韓國住宅銀行으로승격한 同行은 10년이지난 오늘날 全國에 76개지점및 出帳所를 거느릴만큼 방대해졌으며、行員數만도 3천여명에이르고있다。

서울 中區太平路1가61번지 코리아나호텔 빌딩에 자리잡은 本店을비롯한 各점포의 주업무는 주택자금의 대출이며、일반은행 업무도 취급하고있다。특히 국민주택채권은 同行만이 단독으로 취급하고있으며 일반에게 잘알려진 住宅福券을발행、주관하고있어 오히려 주택복권으로 잘알려져있는 은행이라하겠다。

◇東友會의결성

총32명의 회원을 헤아리는 住宅銀行에 東友會가 첫결성된 것은 67年12月의 일。당시 명칭은 東國大學校출신의 住宅銀行모임을 略해「東住會」라 命名했는데 白南伸、鄭豪鎭동문등이 중심이되어 人事課에서 파악된회원은 10여명으로 金秀三동문이 초대간사를지냈다。

그러나 사실상 東住會는 회원수가 적고 모임계기가 마련되지않아 有名無實한채 會名만 유지시켜온 결과가되었다。

그러던중 73年2月 會員數가 毎年증가함에따라 뜻있는 회원들이 主動이되어 조직을 재정비 강화한것이 오늘의 東友會로 발전되어온 셈이다。

이때 선출된 초대회장은金龍東(54·英文·당시 人事部長·현재공인회계사업개업) 동문이었고、부회장에 白南伸、간사에 鄭豪鎭 李應喆동문으로 명실상부한 출범을 보았다고 하겠다。

이어 77年1月 정기총회에서는 金龍東회장이停年退任함에 따라 새任員陣을 구성하였는데 회장에 金在基、부회장에 鄭豪鎭、간사장에 鄭在皓、간사에 閔浩根동문이 선출되어 현재에이르고있다。

◇東友會現況

住宅銀行東友會의 가장 큰 긍지는 회원의 80%이상이 同行內 책임자級으로서 활약하고있는 점이다。그만큼 同行內에서 東大出身이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것으로 어느大學出身도 이를 따르지못하고 있다는것。

이러한 긍지로써 同會는 會員相互間의 친선도모는 물론、특히 慶弔時에는 빠지지않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일이 常例로 되어있다。이 慶弔事는 東住會때부터 있어온 美德으로 회원들의 우의를 두텁게 함으로써 東友愛를 일깨워 주는 가장큰 보람이 되고있다。

뿐만아니라 신입회원 환영회가 매년개최되고 있으며 회원송별회때는 기념품을 전달하며 惜別의 情을 나누고있기도하다。

또한 회원들은 1년에두번씩 정기총회를 열어회원상호간의 단합과 同門意識을고취시켜나가고 있으며 78年末까지를 目標로 1백만원기금을積立하고있는 일은 현행 事業中의 하나。금년초부터 시작된基金적립은 각종경비를 공제하고 현재 30여만원을 확보하고있는데 장재식동문의 경우는 집안에 경사가있었다면서 會費外에 基金으로 2만원을 보태 會員間에 美談이 되고있기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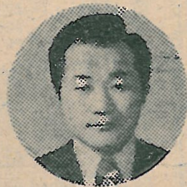
同會는 이제 78年末 1백만원基金이 확보되면、그 利子로서 會費없는모임을 갖는다는 自負로부풀어 보다 결속되고、보다 알차며 긍지롭게 내일을 창조해나가고 있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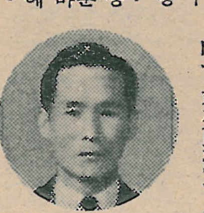
會員의80%가 同行책임자급

永久基金 1백만원을積立中

◇白南伸고문

◇金在 회장


◇鄭在皓간사장


◇宋寬憲

◇孫寬松

◇姜德先

◇閔浩根간사

◇會員프로필

▲白南伸(54·英文)‖同會고문이며、現저축부차장。대한주택공사에 근무하다가 67年同行開店과 동시에 入行한 開店功臣·업무부·감사실등과 소공동지점을 거쳤으며、차분하고도 치밀한 성격에 바둑이 2급으로 同行內에서 바둑의 실력자이기도。

▲金在基(60·經)‖同會회장이며、現永登浦支店長。서울市서무계장으로있다가 68年 入行、미아동·중부지점차장과 개봉동、수표동등의 지점장을 지냈다。특히 작년도「저축의날」에는 貯蓄실적 有功 大統領표창등까지 받은적이 있는 同行의 有望株。

▲鄭豪鎭(60·經)‖同會부회장이며、現晋州支店長。삼호무역(주)에서근무중 67年入行하여 영등포지점、영업부등을 거쳐서무과장을 지냈다。同行內에 테니스부를 창설、현재 간사로 활약중인 鄭同門은 同行內 경북高校동창회장도 맡는등奔忙。

▲鄭在皓(舊名‖柄彩·62·政)‖同會간사장이며、現감사실 검사역。한일모직(주)와 閔丙櫓의원비서관을 거쳐 68년入行。을지로·수표동·미아동·소공동지점등에서 근무한 鄭同門은 대한태권도협회 공인 6단실력자로 同협회 편집분과위원으로 활약중。금년에 저축유공은 행장상을 받기도한 鄭同門은 東友會活動의 핵심멤버로 활약이至大하다。

▲閔浩根(73·經營)‖同會간사로 73年 公採入行하여 현재 사무개선부代理。西大門支店을 거친 閔同門은 他大學과 어깨를 나란히 公採로 入行한데 긍지를 갖고、同會의 운영에 적극 애쓰고 있다。

▲宋祥鉉(58·數)‖춘천지점차장·한국은행에있다가 67年 入行。水泳실력이 뛰어나 국가대표로 활약했으며 수영협회의 전무이사등을 지냄。

▲박희동(56·法)‖67年에 入行한 永登浦支店대리。성격이 강직하며、후암동·을지로지점과 본점등을 거침。

▲宋寬憲(62·法)‖영업부차장。소공동·청계지점등을 거쳤고、성격이 원만한 참모형。업무처리가 신속·정확하다는 評。

▲孫寬松(62·法)‖영업부대리。農協에 在職中 68年에 入行。청약부금층 책임자로 활약。

▲陳道宗(64·經)‖동래지점대리。울산지점을 첫출발지로 부산·대구등영남일대 지방지점서만 근무중。성격이 원만하고、테니스가 프로급이며 수영을 즐기는 多才多能型。

▲金秀三(65·경영)‖서대문지점대리。同會창립시 간사를 맡았으며 입기응변적인 多辯·達辯家로 널리 알려져 모임시마다 무드전환에 크게 한 몫。

▲金鍾哲(65·政外)‖성동지점 대리。성업공사에서 근무하다가 入行。「미스터住宅銀行」으로뽑힐만큼 美男에다 체격도 우람전장한편。복권추첨시마다 入會하고 있어 TV화면에자주등장하기도。

▲慶奎明(67·經濟)‖중화동지점대리。68年 入行、미아동지점등을 거쳤다。67年 經濟科 卒業同期모임인「정든회」의 회장으로도 활약한바있다。

▲姜德先(69·經濟)‖영업부대리。69年 入行했으며、금년에 저축유공은 행장상을 받았다。재학시에는 스피드 스케이드선수로 활약、各 大會마다 우승을 차지하여 모교氷上部를 부활하는데 공헌한 바있다。

▲張在植(69·法)‖을지로지점 대리。봉천동·개봉동·울산지점등을 거쳤으며、同會를위해 특별찬조금을 내는등 열의가 대단。

▲許烈(72·經)‖개봉동지점 대리。청량리지점과 본점 전산실등을 거쳤다。

▲李桂燮(73·經)‖73年 入行、미아동지점、본점 저축부등을 거쳤다。

◇住宅銀行東友會員명단

姓 名	卒業區分	소속및직위	備 考
白南伸	54·英文	저축부次長	고 문
박희동	56·法	영등포지점대리	
宋祥鉉	58·數學	춘천지점次長	
任太奎	59·經濟	제주지점대리	
金在基	60·經濟	영등포支店長	회 장
鄭豪鎭	60經·濟	진주支店長	부회장
宋寬憲	62·法學	영업부次長	
孫寬松	62·經濟	영업부대리	
鄭在皓(柄彩)	62·政治	감사실검사역	간사장
申命植	63·法學	불광동지점대리	
陳道宗	64·經濟	동래지점대리	
金秀三	65·經營	서대문지점대리	
金鍾哲	65·政外	성동지점대리	
李和延	65·商學	수성동지점대리	
慶奎明	67·經濟	중화동지점대리	
姜德先	69·經濟	영업부대리	
張在植(昌植)	69·法學	을지로지점대리	
洪承五	69·經濟	대전지점대리	
李應喆	71·經濟	인천지점대리	
조회조	71·經營	목포지점대리	
朴熙永	〃	부평지점대리	
許 烈	72·經濟	개봉동지점대리	
閔浩根	73·經營	사무개선부대리	간 사
李相英	〃	중부지점대리	
李桂燮	73·經濟	개봉동지점대리	
김대현	74·經濟	관리부	
李榮奎	74·林	청량리지점	
姜錫亨	75·經濟	장위동지점	
최지근	70·경영	사무개선부	
유기언	78·행정	기획부	
남상근	78·농경	중부지점	
이경수	78·전산	사무개선부	
박승희	78·경제	수표점지점	
정재욱	77·經濟	중화동지점	

年會費 납부자 名單

◇5年分

▲李德淵 (52·經) =10,000원

◇3年分

▲金英培 (56·國) =6,000원

◇1년分

▲朴相一 (65·大院) =2,000원
▲金萬斗 (61·英) = 〃
▲洪碩基 (68·經營) = 〃
▲柳 賢 (72·農經) = 〃
▲鄭京圭 (49·史) = 〃
▲장철종 (57·法) = 〃
▲최광석 (59·經) = 〃
▲전진표 (64·林) = 〃
▲백순각 (65·林) = 〃
▲정관영 (50·政) = 〃
▲具熙斗 (51·英) = 〃
▲백승인 (〃) = 〃
▲장길섭 (65·農) = 〃
▲천세욱 (70·行院) = 〃
▲崔達遠 (64·商) = 〃
▲李信雨 (68·상) = 〃
▲金奎滿 (64·英) = 〃
▲宋英子 (〃) = 〃
▲金泰佑 (64·化)
▲姜允子 (65·英) >=5,000원
▲玄海宗 (62·經) =2,000원

◇단체납부분

□南漢中·高等學校
=16,000원 (8名)

▲이상득 (58·林) =2,000원
▲강태진 (〃·〃) = 〃
▲金浣培 (58·農) = 〃
▲김효빈 (65·國) = 〃
▲박동신 (61·物) = 〃
▲리형구 (69·物) = 〃
▲최규현 (71·農) = 〃
▲김병영 (64·農) = 〃

□明星女子高等學校
=30,0000원 (14名)

▲金俊형 (66·佛) =2,000원
▲丁도鎭 (58·數) = 〃
▲禹夏秀 (62·英) = 〃
▲李昇熙 (63·國) = 〃
▲李元珠 (65·佛) = 〃
▲南宮圭 (65·數) = 〃
▲金淑香 (69·英) = 〃
▲張在烈 (70·英) = 〃
▲尹宸雄 (70·數) = 〃
▲李龍浩 (72·〃) = 〃
▲崔成烈 (72·佛) = 〃
▲姜文吾 (74·佛) = 〃
▲董時泳 (74·國) = 〃
▲吳澤源 (77·國) = 〃

□경남商業高等學校

▲朴仁榮(38·中專)=2,000원
▲高大先 (59·法) = 〃
▲趙三禮 (62·國文) = 〃
▲李讚眞 (62·法) = 〃

廣告料 납부자 名單

▲池載赫 (15호) =10,000원
▲張裕吉 (14호) = 〃
▲丁益燮 (17호) = 〃
▲崔達遠 (〃) =10,000원
▲蔡世熙 (〃) = 〃
▲南光朝 (18호) = 〃
▲박성진 (〃) = 〃
▲우동휘 (〃) = 〃
▲金聖涉 (〃) =50,000원
▲洪鳳來 (〃) =20,000원
▲金在國 (〃) =50,000원
▲楊秀成 (18호) =5,000원

理事會費 납부자 名單

▲黃太郎(63·國文)=20,000원
▲金 愚 (53·國) = 〃

※제18호 理事會費중 趙汀植이사의 납부금액을 2만원으로 바로잡습니다.

銀行用·事務用·家庭用
FIRE RESISTIVE SAFE
Ⓨ 第一金庫
日本熊平(구마히라) 技術導入
서울·을지4가(4가로타리)
☎(27)6407·6408

동문 夫婦

金泰佑(夫) 〈64년·化學〉

姜允子(婦) 〈65年·英文〉

學府와 大學院까지 東國人

卒業後둘다 모교 在職中만나

1男1女의 다복한 맞벌이夫婦

○…「東國」을 모교로 하는 우리 會員數는 卒業、혹은 中退者를 합쳐 줄잡아 5만여명─。이중 파악된 夫婦同門은 1%정도로 5백여 커플을 헤아리고 있는데、학부와 大學院까지「東國」을 나온 커플은 손가락으로 꼽아야할 정도인 큰영광을 차지한 金泰佑(夫)동문과 姜允子(婦)동문─。

金同門은 64年 文理大 化學科와 66年 大學院化學科를 卒業했으며、姜同門은 65年 文理大英文科와 77年 大學院 英文科를 卒業한 이른바 碩士夫婦이다。

『학부로 따져 1年선배격인 金同門의 각별한 이해와 격려가 없었던들 가정주부가 大學院과정을 晩學하기란 무척힘들었거예요』라고 姜同門이 먼저 夫君인 金同門에게 감사하다고 추켜세운다。

이에 질세라 金同門도 『사실은 大學院進學을 갈망하는 姜同門한테 여간 미안하고 마음이 무거웠었는데 금년봄에 姜同門이 석사학위를 받게되어 한시름 놓게 되었어요』라고 응수하며 활짝웃는다。

○…金·姜同門이 서로 처음 만나게된것은 학부를 졸업하고 둘다 모교에 在職하게되면서 이루어져 母校와는 보다 깊은 因緣을 맺고있는 셈이다。학부를 卒業하자마자 金同門은 大學院에 進學하여 化學科조교로、姜同門은 外國語敎育院직원으로 모교에 남게된 것이어서 인연이라면 因緣이라는것。

당시 外國語敎育院의 技士인 沈光輔(64·物)동문과 동기동창인 金同門이 英語공부를 익히기위해 外國語敎育院에 자주 드나들므로써 서로 人事정도를 나눈것이 결혼으로 골인하게되었다고 서로 빙그레 웃는다。

그런데 하루는 沈동문이 姜同門에게『金선배어때요?』라는 당돌한 물음에 姜同門은 긍정도、부정도 하지 않았단다。그것은『金同門이 차분하고 책임감이 큰것같았고 또한 自强의 의지가 엿보였기때문』이었다고 姜同門이 그때의 心情을 털어놓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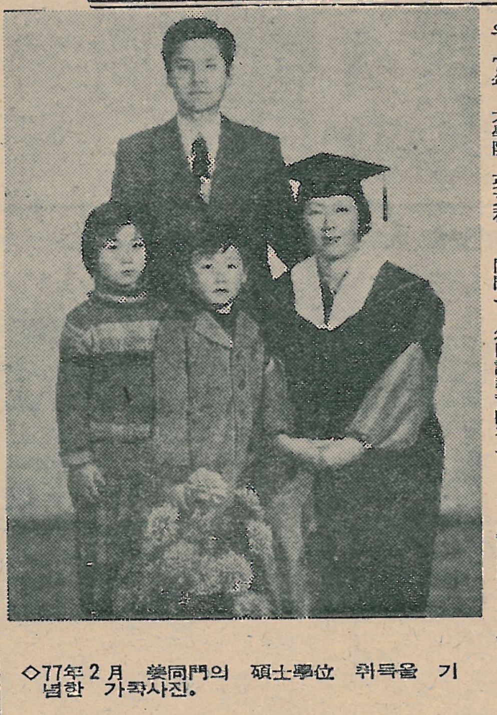
그리하여 두同門은 1968年2月22日오후2시 모교 吳碩奎교수주례하에 동원예식장에서 마침내 결혼식을 올림으로써 同門夫婦로 탄생된셈。

『金同門은 이해심이 많고、누구보다 인내력도 강해 함께 살면서 別다른 不平不滿이 있을수 없었다』고 말하는 姜同門은 『모든 夫婦同門이 마찬가지겠지만、모교일에 함께 관심을 가질수 있다는건 가정도 그만큼 원만하다고 보아 과히 틀리지 않을것』이라고 夫婦同門의장점을강조한다。

○…교과서를비롯 冊들이 가장큰 재산이되고있는 金동문은 수복(株)공장장을거쳐、현재 주안에 공장이있는 진흥요업(주) 관리부장으로 활약하고있다。

姜동문은 名門 경기여고를나와 梨大 史學科를 1년수료하고 母校英文科로 編入한 才媛으로 현재는 모교 電算院과 大京商高에서 英語를 가르치고있다。

○…金同門의 일이 바빠 명절때 시골(경북예천)가는일외에 나들이하기가 어렵다는 金·姜同門의 보금자리는 영등포구가리봉동118~22번지에 소재한 대지50여평의 신흥住宅。슬하엔 長男健植(10)과 長女華淑(8)등 남매를 두고 오늘도 밝은 웃음이 집안에 가득하다。


◇77年2月 姜同門의 碩士學位 취득을 기념한 가족사진。

母校소식!

칼라사진의 선구
사진예술원
부설·P·A칼라종합현상소
한국사진학원
종로2가 파고다아케이트앞
TEL (73)3016 (74)3016
동문환영

대소연회석·주차장 완비
등심구이·불고기·냉면·궁중전골·도시락
부산회관
主 曺延海
호수그릴 맞은편
(777)-4100

「人間化와 學校교육」討論

師範大 주최 敎育심포지움

一線敎師등 多數참가

母校 師範大學(學長=南都泳박사)주최 제8회 교육문제 심포지움이 「人間化를위한 學校敎育의 課題」란 주제로 지난5일 오후 2시부터 본관 세미나실에서 開催되었다。

金憲奎(師範大) 교수의사회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움은 모교 金秉玉(師範大)교수의 主題에대한 基調講演에이어 本主題에대한 副主題로 康吉秀(서울대)교수등 3名의 論文發表가있었다。

이어 이날오후 裵鍾根교수의 사회로 시작된 討論에서는 李達壽(휘문고교)교사등 일선교사및 교육계인사 8명이 討論에참가, 學校敎育의 근본방안을 모색했다。

이자리에 참석한 李瑄根총장은 격려사를통해 『일선교사들이 한자리에모여 진지한 學術회의를통해 人間化교육문제를 검토하는것은 매우 긴요한일』이라고 중요성을밝히면서 『교육은 나무 한그루를 가꾸듯 꾸준하고 헌신적인노력으로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人間化를 위한 學校敎育의 課題

◇제8회 교육문제심포지움광경

野球部감독에 裵星瑞氏

"母校 野球中興에 기대"

모교 野球部의 신임감독에 裵星瑞(33세·前영남대감독)氏가 새로 부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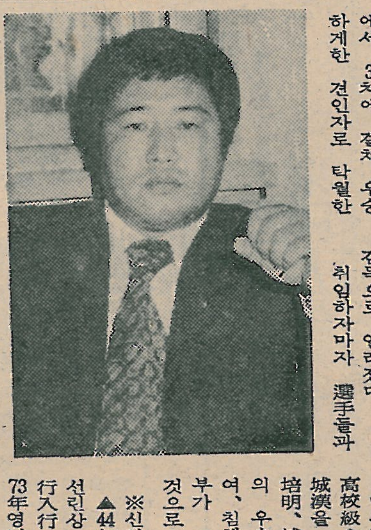
전장악화로 사표를 제출한 前吳潤煥감독의후임으로 온 裵감독은 無名의 영남대를 大學연맹전에서 3차에 걸쳐 우승하게한 견인자로 탁월한 지도 능력을 과시해왔다。

신임 裵감독은 스파르타式의 강훈련으로 유명하며, 특히 選手들이 지켜야할守則을 정해놓고 여기서 조금이라도 이탈하면 제아무리 우수한 선수도 出戰을 금지시키는 감독으로 알려졌다。

취임하자마자 選手들과 함께 强訓에 들어간 裵감독은 다가올 冬季강화훈련에서는 基本技習득에 중점을 두고 서키드·웨이트트레이닝에 의한 체력강화훈련、로드웍으로유연성과 순발력개발에 주력하는한편 정신력과 투지강화、팀웍의 재정비에도힘써 新春에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겠다고 다짐하고있다。

이와함께 금년에는 超高校級으로 불리우는 金城漢을 비롯 群山商高와 培明、城南등에서 10여명의 우수선수를 스카웃하여、침체되었던 모교야구부가 一大轉機를 가져올것으로 전망되고있다。

※신임 裵감독의약력 ▲44年 서울出生 ▲63 선린상고졸 ▲62年韓一銀行入行 ▲63年建大入學▲73年영남대감독



學內外환경 自律的淨化

모교 自然保護會발족

汎國民的으로 실시하고있는 自然保護運動에 호응하여 母校에서도 學內外 自然環境保護및 淨化作業과계몽을 위한 「東國大學校 自然保護會」가 지난 10월27일 발족 되었다。 李瑄根總長을 會長으로 하고、金翰周總務處長을 副會長으로하는 同會는 自然淨化、自然保護、環境보전을 목표로교내 교직원、학생이 자연보호 사상을 생활화하고、자연훼손 방지를 위한 계몽과 敎育訓練을 실시함은물론 매일 교내외 청소를하는등 자율적인 淨化事業을 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에 따라 11月첫주인 지난 5일 各學·處長을 비롯한 교수·직원·학생 2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차책임구역인 장충공원、남산순환도로 주변에서 실시되었다。

行試 1차 19명合格

考試班 집중指導 주효

第21回 行政考試 1次試驗에 모교 학부생·졸업생 대학원생등 총19명이 대거합격, 기염을 토했다。 지난10월17일 총무처에서 실시해 지난5일 발표된 이번1次시험에는 학부생 9명졸업생2명、대학원생 8명등 총19명이 合格했는데이숫자는 졸업생명단이 확인되면 더 늘어날것으로 보인다。 이들 19명과 지난제20회 행정고시 1次에 합격한 우승환(경·4)군등 총28명이 15일부터 실시되는 제2차시험응시자격을 획득 했는데, 考試指導委員會(委員長=崔요환 法政大學長)에 따르면 각종 國家考試 2차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얻은 학생은 총51명으로 행정고시28명、사법고시 17명 외무고시6명등이다。

이와같은 국가고시 合格者의 대폭적인 증가에 대해 李淳容考試班指導敎授는 『李瑄根총장님의 적극적인 배려에 따른 학교 당국의 집중지원과 고시특강등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학생들의 자질과 학구열이 전례없이 진작된것에 힘입은바크다』고 밝히고 『앞으로考試班의 효율적 활용과 우수학생을 집중지도하면 보다많은 합격자가 나오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번 제21회 1차합격자 명단。

▲이동근(行政2)▲한종석(〃3)▲손유동(〃3)▲남택범(〃4)▲조돈희(〃4)▲권지관(경행3)▲박병식(경제3)▲유권중(〃)▲이종원(77·행정)▲최혁지(77·법학)▲나경수(행정4)▲정유섭(行院)▲서석인(〃)▲민병림(〃)▲신창범(〃)▲이동열(〃)▲이승종(〃)▲조영태(〃)▲박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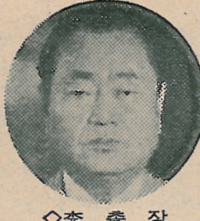
敎授動靜

▲김성배(도서관장)박사=지난달 28일오후6시30분 시내신문회관에서回甲宴을 베풀었다。이자리에는 학계와 친지·동창등 3백여명이 참석코축하해주었는데 회갑기념문집으로 東岳語文論集、회갑기념論文集、새국어교육、청란실의 인연、떼보의그림등이 발간되어 증정되기도했다。

▲徐京保(佛敎大)박사=한평생을 갈고 닦아온 禪筆 1백30점의 대작품을모아 지난11일부터 15일까지 5일간 덕수궁행각에서 一鵬徐京保박사禪筆書展을 열었다。

李瑄根총장 渡日

컴퓨터寄贈 感謝인사次



◇李총장

모교 李瑄根총장은 모교에 30萬弗상당의 FACOM컴퓨터 시스템을 기증한 日本 富士通(株) 고바야시 타이큐(小林大祐) 사장에게 感謝의뜻을傳하고자지난14일 安思明교수와함께渡日했다。

小林사장은 지난8月25日 國內大學街에서는 最大·最新시설인 同컴퓨터를 모교 전자계산교육용으로 기증한바 있다。

모교卒業美展

延7천여명 관람

母校 美術學科주최 제4회 東大美展이 7천여명의 관람객을 동원하는등 풍성한 成果를거두고 10月26日 폐막됐다。

제4회 卒業美展과 제8회 在學生作品展을겸한 이 東大美展은 성황속에 지난 10月18日부터 G건물2층특설전시장에서 전시됐다。

「킨데만」박사來校

李總長과환담

西獨 뮌헨大學 교수이며 國際政治學硏究所長인 G·K·킨데만博士가 지난10월31日 母校를 방문、李瑄根總長과 환담했다。

이날 환담회에서는 國際政治와 韓國佛敎및 문교정책 문제등에 관한 相互관심사를 討議했다。

黃哲淳君 金메달 차지

아시아복싱選手權大會서

◇黃君

제8회 아시아복싱선수권대회 국가대표선수로 出戰한 母校 黃哲淳(경행·2)군은 지난10월19일열린 밴텀급결승전에서 이란의 바바베선수를 물리치고 金메달을 獲得했다。

東國大61년經濟學科
定期總會개최공고

東國大學校 61년 經濟學科卒業同期會의 1977年度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公私多忙中 會員諸位께서는 필히 參席해주시기 바랍니다.

日時：1977年11月25日(金)
오후 6 시30분
場所：풍전호텔 2 층회의실
會費：3,000원

1977年11月15日
61年經濟科同期會長
崔 允 植

祝 東友會報의 무궁한 發展을 기원합니다 慶

금강화물(株) 대표이사 이근후
인천항계업협회 전무 신광열
동보석유(株) 상무이사 김환 판매부장 김광영
녹번예식장(서울) 대표 이병관
정경사 대표 조병호
극동실업(株) 대표이사 원태진
한국전력(株)인천지점 서무계장 홍창모 서무주임 백남철
仁川東部警察署 형사반장 민병수
仁川AID아파트자치회 회장 오정일
운봉공업고등학교 교장 오영섭
동양화학(株) 창고담당관 김일성
서울信託銀行 仁川支店 대리 구병서
富川市敎育廳 장학사 이주곤
인천탁·약주합동제조위원회 상무 정송근
南仁川女子中學校 교감 유승완
上仁川中學校 교감 김경배

晉州三賢女子高等學校

校長 崔 載 浩 동문

賢母·賢妻·賢民을 길러내는

民主女性교육의 전당

○…어진 어머니(賢母) 어진 아내(賢妻) 어진국민(賢民)의 세가지 德目을 敎育의 指標로 삼고자 校名까지 이를 따은 晉州 三賢女子中·高等學校—。

校長 崔載浩(54·國文) 동문은 『아름답고 장하고 거룩한 민족의 힘을 길러낼 밑바탕은 곧 三賢(賢母·賢妻·賢民)의 生活化에 있다』고 전제하고 『이 三德目을 근본이념으로하여 나라와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女性의 人格形成에 精進함을 敎育의 至上目標로삼고있다』고 확고한 교육신념을 펼친다。

또한 崔同門은 『敎育은 國家의 百年大計라고 하듯이、敎育의 힘이야말로 스스로를 발전시키고 국가와 人類의 염원을 실현하는 밑거름인 만큼、보다 진지한 召命의식으로 敎育一線에서 뛰고있다』고 덧붙인다。

○…三賢女高는 1971年12月 9학급 설립인가를 얻어 72年3月8日개교와함께 崔同門이 교장에 취임하였다。

이어 72년11월엔 15학급으로 증설인가를 받았으며、同年 12월29일엔 30학급이란 대폭적인 증설인가를받아 新生학교답지 않게 눈부신 발전을 보였다。

5년여에 1천여명의졸업생을 배출한 三賢女高는 74년1월 본관 35개 교실을 완공함으로써、중학교가 3층건물 27개교실、고등학교가 4층48개교실과 생활관、실내체육관、테니스場등도 시설되어있다。

◇崔동문

진주시내 상평동 217번지에 위치한 총대지 3만4천7백51평의광활한 터전에는 3천여명의 발랄한 학생들로 한층 활기롭다。교직원수는 1백여명。

○…이러한 三賢女高의 敎育方針은 崔同門이 提唱한 三無主義교육이 단적으로 말해준다。즉「三無」란 매없는 교육(無體罰)、감독없는敎育(無監督)、잡부금없는 敎育(無雜賦金)을 실천하는 것으로 곧 良心敎育을 말한다。

첫째 매가 없으면 사랑과 신뢰로써 人間關係가 맺어지고、協調와 對話로써 학습되며、스승과 弟子는 모두 함께 행함으로써 (師弟同行) 자율적인 자기발전을 꾀할 수 있다는것。

둘째、무감독이란 감독없는 시험、주인안지키는 매점이 그 구체적 사항으로 良心에 바탕을 두어 크게 成果를 거두고 있는 실정。自學自習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적을 둔 무감독시험의 경우、中學校는 72년부터 실시하여 다른 여러 中學校에 비해 뛰어난 성적을 얻었고、高等學校는 74年부터 실시하여 학력고사등에서 道內私學中 第1位를 차지하고있다。

「友情의 걷기운동」으로 不遇學友의 장학금마련

無體罰·無監督·無雜賦金을 이룩

"自重·自愛하는 勉學에의 精進"을 후배에게 당부

또한 無人매점은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도學生各自가必要한 학용품을 돈과 바꾸어가는것인데、여기서 나온 利益金은卒業生에게 저축통장을 만들어주어 人生의 첫出發에 기념으로 삼게하고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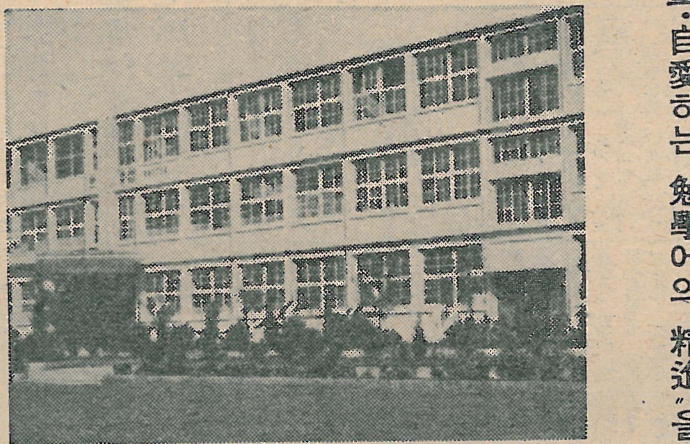
셋째、無雜賦金으로 學究生活의 明郞化와 非情緖的 교육을 지양하고있다는것등이다。

뿐만아니라 특색있는敎育活動을 살펴보면 과히他校의 모범임을 直感할수있다。

그하나는「友情의 걷기운동」으로、한달에 한번씩 학생과 교직원 全員이 걸어서 登校하는것으로 이는 健康增進、에너지절약、忍耐心의 함양과 불우학우돕기운동을 겸한 것으로 1년동안 1백여만원을모아 약2백여학우에게 혜택을주었다。

두번째 특징은「주인찾는 코너」를설치코、「당신의 물건은 당신에게로」라는 표어와함께 학생들이 실수로 잃은 물건을 모아두고 주인을 기다려 찾아가게하는 이색적인착상이다。

또한 세번째는「三生敎育」으로 우리민족의 오랜동안의 결점은 과학성의 결여에 있다고 보고 우리2世들에게「과학적으로 생각하고」「과학적으로 생산하고」「과학적으로 生活하자」고 늘강조하고 있는점이다。


◇三賢女高의 본관校舍

그밖에 每年수련대회등을 열고 있는데「林間수련도장」으로 이미 三神山의 하나인 智異山중턱에 부지 3萬坪을 확보하여 건설작업에 착수하고 있기도 하다。

○…학부와 大學院까지 東國에서 마친 崔同門은 『당시서울大에 入學하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東國을 찾은것은 國文學科로서는 최고의 권위를자랑하는 碩學이 많은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다』고 말하고 後배들에게 『近1세기의 歷史를가진 東洋學의전당으로서의 전통을 잘살려 그역사적 계승자가 되도록 自重·自愛의 자세로서 면학에 정진해 줄것』을 권하기도 한다。

○…崔同門은 경남일보사장(10년)과 경남대학강사(2년)、경남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4년)、재건국민운동경남도위원장(5년) 경남문화상 심사위원(5년) 중앙교육위원회위원(2년) 경남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등을 역임했으며、경남도 文化발전에 기여한공로로 道文化賞을 수상한 바도있다。

또한 詩人이기도한 崔同門은「비치단장」이란 詩集을 발간했는데、교장실엔 漢詩集이 가득하며 本會前西部慶南支會長(10년)、東國文學人會會員등으로 동창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本報編輯委員名單
琴德淵(委員長) 李丙疇
崔致根 崔載福 鄭世鉉
宋 赫 林德圭 申瓚均
李慶純

꿈마다

崔 淳 烈

포기하라, 포기하라。
내 텅빈 가슴을 두고
꿈마다 그 金剛力士가 호령한다。
이미 耳目口鼻를 다 던지고
또한 手足을 던진 지 오래건만
부릅뜬 눈으로 버려라,
거듭 버려라!
노래부르지 못하는 하늘도
정정당당하게 내딛지 못하는 땅도
나를 한순간도 감춰주지 못하는壁도
잊고 또 잊었는데,
힘줄 선 팔뚝을 휘두르며
다시 떠나라 떠나라。
뜨거운 눈물을 안다
들끓는 피의 뒤척임을 알고
굳게 막아 선 非情의 槍도 알아
여기 다소곳이 물러나서
먼지 사이 햇빛 한 줄기라도
찬물 속에 흔들리는
水草 한 오래기라도
기다리며, 기다리고。
아니다, 아니다。
그는 쩌렁쩌렁 울리도록 외친다
기다리지 말라
더구나 꿈꾸지 말라
꿈마다 기다리지 말라。

<72·國文·詩人·祥明女高교사>

公告

1977年度 臨時總會겸

「東國人의 밤」開催

多事多難했던 丁巳年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會員相互間의 친목과 全東國人(同門·敎授·職員)의 大同團結을 도모하기위해 「임시총회겸 東國人의밤」 행사를 다음과같이 개최하오니 주위에 두루 알리어 많은 參席바랍니다。

日 時＝一九七七年十二月十六日(金) 오후6時
場 所＝世宗호텔 해금강홀 (忠武路二街)
案 件＝一部·臨時總會
二部·東國을빛내준 同門祝賀牌증정
三部·送年파티
四部·長技자랑및행운권추첨

※其他 자세한것은 本會사무국 (㉗8568) 으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977年11月

東國大學校同窓會

會長 崔 載 九

안과처방조제
(고려병원·김희준안과지정)
고려안경원
문화방송 ·광화문쪽30m
동문의집·(72)0524

새시대의 새보험
자동차종합보험, 운전자보험
자동차종합 보험은
- 인명피해는 무한으로
- 재물피해는 천만원까지
- 차량손해는 실손해전액을 모두 보상하여 드립니다。

운전자보험은
- 가족의 생계비
- 사고처리비 및 벌금
- 사망보험금·후유장해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국자동차보험

車主여러분 안심하세요!
自動車綜合保險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26) 3111~5